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I . 일반개황

면적	190.4만 km ²	G D P	1조 109억 달러 (2017년)
인구	2억 6,199만 명 (2017년)	1 인 당 GDP	3,859달러 (201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Rupiah (ID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 율(달러당)	13,380.9 (2017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17,5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로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석탄, 천연가스, 석유, 주석, 니켈, 목재 등 광물자원과 산림자원이 풍부함. 또한, 연평균기온이 25~27℃에 달하는 열대성기후로 다양한 열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 자원도 풍부함.
-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수하르토 체제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음. 2004년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유도요노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으며 2014년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함.
- 1995년 반동회의 개최를 통해 제3세계 진영에서 비동맹·중립 진영의 결속을 주도한 바 있으며,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민간소비 회복과 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 완만한 상승세 지속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15년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 석탄 등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와 함께 루피아화 가치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2010년 이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함.
- 201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민간소비 회복 및 정부의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에 힘입어 5.0%로 회복됨.
-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소비 및 투자 증가와 함께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5.2%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소비 및 투자 증가, 정부지출 확대 등 내수확대로 경제성장률이 5.3% 수준으로 전망됨.

* 국제유가(WTI, 달러/배럴) : 98.0('13년)→93.2('14년)→48.7('15년)→43.3('16년)→50.8('17년)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 내외 수준이며 중앙은행 목표범위 내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에 통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및 휘발유·경유 등 연료보조금 감축정책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등으로 6.4%를 기록하였음.
- 2016년에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및 휘발유, 육류,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인하 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3.0~5.0%) 내인 3.5%로 둔화됨.
-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회복 등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0%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과 비슷한 3.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평균환율(루피아/달러): 10,461('13년)→11,865('14년)→13,389('15년)→13,308('16년)→13,381('17년)

□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대의 만성적 재정수지 적자 지속

-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세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보건, 교육 등 지출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대를 기록하고 있음.
-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천연가스, 석탄 등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5%로 소폭 증가함.
- 2016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7월 이후 실시한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2.5%로 전년 수준을 기록함.
 - * 조세사면 프로그램: 국내외 은닉자산에 대해 낮은 세율 적용 등 혜택을 부여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정책
- 2017년에는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사회적 지출과 공공사업 등 정부 지출 증가에 따라 -2.7% 수준으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성장을 상승과 함께 정부의 세수확대 노력에 따라 -2.5%로 소폭 축소 될 전망이다.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5.0	4.9	5.0	5.2	5.3
소비자물가상승률	6.4	6.4	3.5	4.0	3.9
재정수지 / GDP	-2.1	-2.5	-2.5	-2.7	-2.5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부정부패 만연으로 국고손실 등 비효율 발생

-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7년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평가대상 180개국 중 태국, 브라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잠비아와 함께 96위를 차지하여 필리핀(111위)·베트남(107위) 보다는 다소 나으나, 중국(77위), 인도(81위)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상 애로사항으로 지적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3년 부패척결위원회(KPK)를 설립하고 기소권과 자체 구치소 보유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패방지에 힘을 쏟고 있으나 공무원, 정치인 등 고위층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2015년 6월 세트야 노반토 하원의장이 미국 광산기업 프리포트-맥모란의 영업권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40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요구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됨.
- 2016년 9월에는 이르만 구스만 상원의장이 설탕 수입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조달청에 동 업체의 수입 쿼터를 늘리라고 외압을 가한 혐의로 체포됨.
- 2011~12년 전자신분증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수뢰 혐의로 2017년 11월에 세트야 노반토 인도네시아 하원의장이 구속됨.

□ 전력 등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C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은 조사대상 137개 국 중 52위를 기록하였음.
- 특히, 유선전화 회선(104위), 전력공급(86위), 항만(72위), 도로(64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군도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송전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역별 전력 보급률의 차이가 크고, 운송 인프라의 질이 취약한 편임.

□ 노동 규제가 강한 편이나 기업경영여건은 개선 추세

- 세계경제포럼의 2017~18년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조사대상 137개 국 중 96위로 하위권임.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이 조사대상 137개 국 중 123위로 평가되는 등 노동 규제가 강한 편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17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기업경영여건은 전체 190개 국가 중 직전 91위에서 72위로 상승하는 등 크게 개선됨.
- 전기공급(38위), 사업청산(38위), 소액투자자 보호(43위), 자금조달(55위)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법적분쟁해결(145위), 창업(144위), 세금납부(114위), 수출입절차(112위), 건축인허가(108위), 재산권등록(106위) 등 부문에서 행정처리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 기업경영여건 추이: 120/189('14년)→109/189('15년)→91/190('16년)→72/190('17년)
- * 2017년 아시아 주요국 기업경영여건: 베트남 68위, 중국 78위, 인도 100위, 필리핀 113위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인구 등에 힘입은 견조한 내수기반 보유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은 약 2.6억 명의 인구와 소득증가에 힘입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2017년 민간소비는 GDP의 57.6%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 McKinsey는 2012년 9월에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전제로 인도네시아가 세계 16위 경제규모에서 2030년에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다양한 천연자원과 저임 노동력 보유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주석,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 역시 세계 10위권 내로 분석되는 등 보유자원이 풍부함.
- 주석 80만 메트릭톤(세계 2위), 니켈 450만 메트릭톤(세계 7위), 석탄 256억 톤(세계 9위), 천연가스 2.9조 입방미터(세계 14위), 석유 33억 배럴(세계 29위)의 매장량을 보유함.
-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기준 약 1.7억 명 수준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0%를 기록하였고 경제활동인구도 2017년 기준 약 1.3억 명으로 추정되는 등 저임 노동력이 풍부함.

- 다만, GDP 대비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2015년 3.58%로 UNESCO 평균 (4.5%) 대비 낮으며, 기초·중등교육과 함께 연구개발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들이 고급·전문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

다. 정책성과

□ 연료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인프라투자 예산 확보

- 인도네시아는 저소득층 지원 및 물가안정을 위해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재정·무역수지 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함.
-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료 과잉소비 및 수입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환하였음.
- 이에 정부가 2013년 6월에 이어 2014년 11월에 연료보조금을 감축함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격이 각각 31%, 36% 상승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 국제유가 연동제를 도입하였음.
- 연료보조금 지출액은 2012년 이후 감소추세로 2016년 44조 루피아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에도 33조 루피아 수준으로 추정됨. 한편, 전기 보조금은 2015년 58조 루피아에서 2016년 63조 루피아로 증가한 이후 2017년 49조 루피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 연료보조금 지출액(조 루피아): 306('12)→210('13)→240('14)→61('15)→44('16)→33('17^o)
- * 정부지출 대비 연료보조금 비중(%): 20.5('12)→12.7('13)→13.5('14)→3.4('15)→2.4('16)→1.6('17^o)
- 2016~2020년 인프라 구축 사업 소요금액은 총 3,270억 달러로 추산되며 확보된 금액 1,697억 달러는 정부, 국영기업, 민간부문에서 각각 151억 달러, 448억 달러, 1,098억 달러를 조달함.

□ 조코위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16년 5월 대대적인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함.
 - 냉동창고, 영화관, 일반 식음료 업종 등 10개 분야의 경우 외국인이 100% 출자할 수 있게 되었고, 백화점, 의료, 이동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67%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함. 아울러, 육상 운송업 등 분야는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문호가 개방됨.
 - 이는 최근 10년간 단행된 외국인투자 규제완화 조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9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규제완화 등으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3. 대외거래

□ 상품수지 흑자 등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 개선 추세

- 1998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던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중산층 증가에 따른 소비재와 인프라개발을 위한 자본재의 수입확대에 따라 2012년에 적자로 전환된 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폭이 증가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축소되어 전년(-175억 달러) 대비 개선된 -168억 달러를 기록함. 2017년에는 서비스·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적자는 -170억 달러 수준으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지 흑자는 2013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15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7년에도 191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상품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개선 추세로 2016년에는 상품수지 흑자폭 증가와 함께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로 인해 -1.8%로 개선되었으며 2017년에도 경제성장세 등에 힘입어 -1.7% 수준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IMF는 2018년 2월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를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함.

□ 외국인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증가세 유지

- 외환보유액은 2013년 외국인자본 이탈 및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따라 964억 달러로 감소한 이후, 외국인투자 증가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가 축소되면서 2014년 이후 1,000억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13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1,269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3년 4.8개월로 하락한 이후 2016년 7.1개월의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동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이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다소 높은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루피화 가치하락에 따라 2012년 이후 상승하여 2015년 35.8%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는 환율 하락 및 GDP 확대에 의해 33.5%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015년 12.5%에서 2017년에 13.8%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원리금상환액 증가 및 총수출 감소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14.7%를 기록하였으며 2017년에도 14%대를 유지함.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은 2014년 42.2%에서 2016년 37.1%로 하락하였으나 2017년에는 37.3%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은 천연가스, 석탄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감소 및 외채증가에 따라 상승세를 나타내며 2014년 145.8%에서 2016년 184.2%로 상승하였으나 2017년에는 수출증가로 인해 173.9%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27,510	-17,518	-16,769	-17,030	-19,646
경 상 수 지 / GDP	-3.1	-2.0	-1.8	-1.7	-1.8
상 품 수 지	6,982	14,047	15,436	19,115	17,346
수 출	175,293	149,123	144,444	168,146	195,283
수 입	168,311	135,076	129,008	149,032	177,937
외 환 보 유 액	108,836	103,268	113,493	126,857	146,297
총 외 채 잔 액	292,971	308,222	316,431	342,598	357,858
총 외 채 잔 액 / GDP	32.9	35.8	33.9	33.5	32.5
D S R	9.4	12.2	14.7	14.2	14.0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중 정치안정 유지 전망

- 2014년 7월 대선에서 군부 권력층과 무관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 (Joko Widodo) 후보는 친서민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라는 인식에 힘입어 53%의 득표율로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함.
- 2015년 경제성장률 둔화로 정권기반이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로 2019년 임기 말까지 대체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지지율은 취임 당시 75%에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난으로 2015년 7월 40%대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8월 66.5%로 회복됨. 2019년 4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계획으로 7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등 재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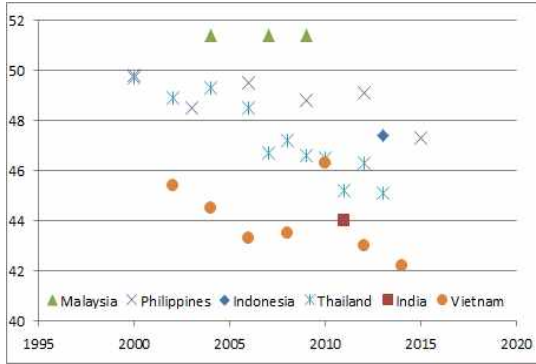
□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테러 등 불안요소 잠재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로 2002년 이슬람 과격단체 제마 이슬라미야(JI)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끊임없이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음.
- 테러방지법 제정, 경찰·군병력 배치 등을 통한 경계강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이슬람국가(IS)의 자카르타 자폭 테러 및 동년 7월 IS 연계 조직원의 중부자바주 자폭테러가 발생하는 등 불안요소가 잠재되어 있음.
- 테러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인도네시아 내 극단주의자의 테러 증가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7년 12월 경찰 대테러부대를 대폭 증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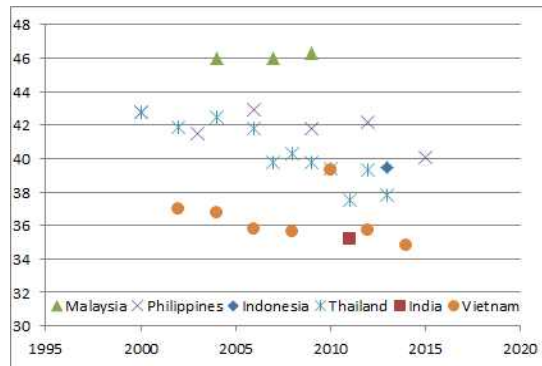
□ 계층 및 지역 간 빈부격차 확대

- 세계은행은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대가 상위 20%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힘.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도시와 지방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임.
 - 소득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2013년 기준 47.4%로 베트남(2014년 42.2%), 인도(2011년 44.0%) 등에 비해 소득분배가 상위권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지니 지수는 2013년 39.5% 수준으로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중간 수준의 소득분배 불평등도를 기록하고 있음.
 -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빈곤율은 11.3%로, 도시 지역은 8.3%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14.2%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그림 1> 아시아 주요국 소득상위 20%의 소득 비중



<그림 2> 아시아 주요국 지니 지수(Gini Index) 추이



자료: 세계은행

-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약 82백만 명의 국민이 하루 3.2달러(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 국제구호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2016년 인도네시아 상위 4명의 재산이 250억 달러로 총인구의 40%인 약 1억 명의 부와 맞먹는다고 밝힘.

3. 국제관계

□ 적극적인 다자외교 참여를 통한 중도노선 강화

- 중도노선 및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이슬람회의기구)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역할 증대에 적극적임.
- 조코위 정부는 해양자원 보호, 항구 인프라 확장, 해양 안보를 위한 해군 강화 등 지역내 '해양 축'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에 참여하고 있음.

* ASEAN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 간 추진중인 FTA

** RCEP에 참여하는 12개 국 및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국 간 추진중인 FTA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의 갈등 잠재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는 비당사국이었으나, 중국이 인도네시아령인 나투나섬의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면서 당사국의 입장에 서게 됨.

* 중국 하이난 남부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 사이에 위치한 350만 km² 해역으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에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2016년 5월 나투나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저인망 어선에 발포한 뒤 어선을 나포하였으며, 동년 6월에 동 해역에서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함.
- 2016년 6월 중국은 나투나제도 인근 해역을 '중국 어민의 전통적 어장'이라고 주장함. 이후 인도네시아는 나투나제도의 군 활주로를 확장하고 구축함과 전투기 등을 추가 배치하고 동년 10월 나투나제도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함.
- 2017년 10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나투나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 어선 등 33척을 침몰시킴.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과거 채무재조정 및 구제금융 경험이 있으나, 현재 외채부담은 경제규모 대비 크지 않은 수준
- 인도네시아는 과거 채무재조정 및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였음.
 - 동국은 2002년 67억 달러, 2005년 26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2003년 중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IMF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였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은 2017년 기준 33.5%로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며, 총외채 중 중장기외채 비중은 2016년 약 86.7%로 외채구조가 양호한 편임.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금액은 감소세

- 2017년 12월 말 기준 인도네시아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총승인액은 196.7억 달러(단기 35.1억 달러, 중장기 161.6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체금액은 중장기 승인액에 대해 6.9억 달러(중장기 승인액의 4.3%)로 감소세를 나타냄.

*연체금액(년 말 기준, 억 달러): 20.6('13년)→15.1('14년)→11.2('15년)→6.8('16년)→6.9('17년)

- 중장기 승인액(161.6억 달러) 중 컷오프('97년 7월 1일) 이후 승인액은 142.1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체금액은 2017년 12월 말 기준 1.1억 달러(0.77%)에 불과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은 2017년에 인도네시아 등급 상향 조정

- 2011~2012년중 OECD와 3개 국제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는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조정함.
- OECD는 2012년 인도네시아에 대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Fitch는 2011년 인도네시아에 대한 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Moody's도 2012년 Baa3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 S&P는 2017년 5월에 재정수지 적자 축소 및 공공부채 안정화 전망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 등급을 BBB-로 상향조정하였으며 Fitch는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등급을 BBB로 다시 상향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8. 3.)	C1 (2017. 3.)
OECD	3등급 (2017. 6.)	3등급 (2016. 6.)
Moody's	Baa3 (2017. 2.)	Baa3 (2016. 1.)
Fitch	BBB (2017. 12.)	BBB- (2016.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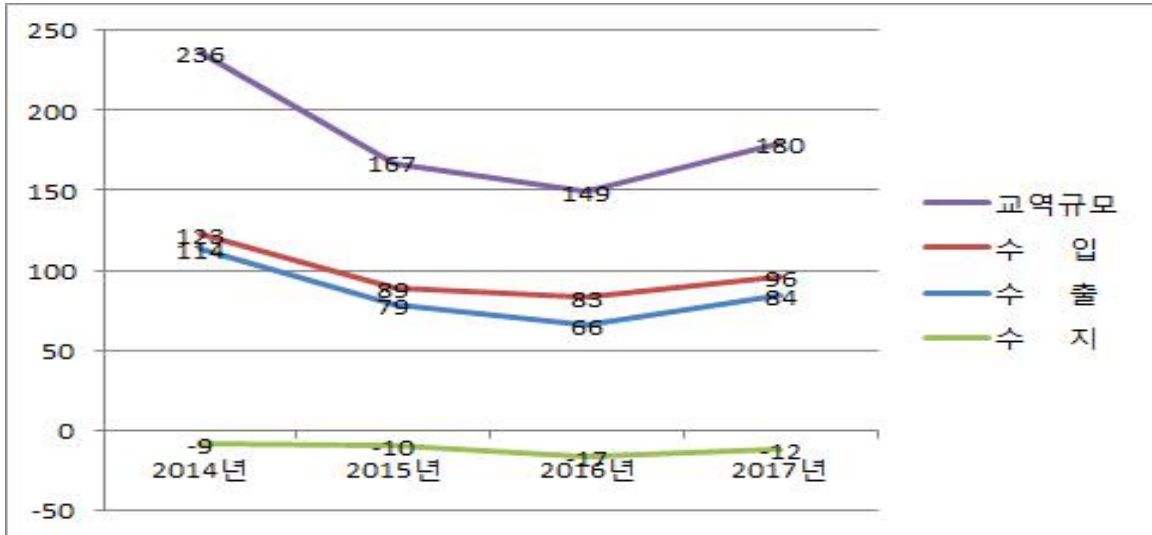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약('89년), 투자보장협정('94년), 문화협정('07년), 범죄인인도조약('07년), 원자력협정('11년), 무상원조협정('13년), 형사사범공조협정('14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나라의 제10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
 -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1차 금속, 의복 및 모피제품 등 제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2017년 9월 말 누계 기준 101.7억 달러(2,050건)를 기록함.
- **교역 현황:** 우리나라의 제13위 교역 대상국으로 무역수지 적자 지속
 - 2017년 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13위 수출대상국, 제12위 수입대상국이며 대규모 석탄, 천연가스 수입으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경유, 합성수지 등), 선박, 철강판, 면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탄, 천연가스, 의류, 원유 등임.

<그림 3>

한·인도네시아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의견

- 경제성장률은 천연가스, 석탄 등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및 루피아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로 2015년 4.9%로 하락한 이후 2016년 민간소비 회복 및 인프라 등 공공투자 증가로 5.0%로 회복됨. 2017년 경제성장률은 소비와 투자 증가와 함께 수출 증가로 5.2%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내수확대로 5.3% 수준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은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및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2015년 6.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안정, 생필품 가격인하로 3.5%의 안정세를 나타냄. 2017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회복 등으로 4.0%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도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보건, 교육 등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2%대의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조세사면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 등으로 -2.5%를 기록함. 2017년 사회적 지출과 공공사업 등으로 -2.7%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에는 성장률 상승과 함께 정부의 세수확대 노력에 따라 -2.5% 수준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상품수지 흑자 증가 등으로 -168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17년에는 서비스·소득수지 적자 확대로 -170억 달러로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됨.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3년 -3.2%로 확대된 이후 하락하며 2017년에는 경제성장세 등에 힘입어 GDP가 증가하며 -1.7%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대선에서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당선되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함. 현 대통령은 7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총외채규모는 2017년 33.5%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단기외채 비중도 2017년 13.8%로 낮은 수준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2017년 월평균 수입액 대비 약 7배 수준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단기외채 대비로는 약 2.7배 수준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분석됨.

선임조사역 김찬수 (☎02-6255-5704)
 E-mail: avik@koreaexim.go.kr